

# 우리아이 '방학 캠프' 보내야하나...

'해병대 캠프' 충격...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걱정

전남 일부 시설도 민간 업체와 계약 맺고 운영 중  
초·중·고 여름방학 시작...지자체 대책 서둘러야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훈련 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인한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 캠프와 수련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규정 마련 등이 절실히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은 현재 청소년 수련관(13곳)·청소년 수련원(8곳)·청소년 문화의 집(11곳)·

청소년 앙마장(7곳)·유스호스텔(6곳) 등 모두 45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관계 기관의 경우 해당업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안전 요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설 캠프와 관련된 자료는 없다"며 "각 수련시설 자체적으로 판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련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다"고 말했다.

체험 캠프에 대한 지자체 등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사고로 이

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혼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모든 숙박형 캠프에 대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지만 당장 초·중·고 여름방학에 시작된 만큼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한편, 지난 2008년 장성군의 한 수련원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주도의 병영체험을 하고 돌아온 중학생 1명이 의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솔자의 하락 없이 인근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려 관현자를 입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사고 땐 모든 책임 본인에게"

전남교육청, 힐링캠프 참가자에 서약서 받아 비난 쇄도

"만일 불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이 '힐링캠프' 참가자들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서약서를 받아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전남지역 학부모들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보호자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이 캠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보호자와 함께 참여해 마음을 치유 프로그램으로 7월 26~27일, 8월 9~10일, 8월 14~15일, 8월 16~17일 총 4차례 1박2일 과정으로 월출산온천관광호텔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참가자 접수 과정에서 '불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내용

의 서약서를 참가자(보호자)들로부터 받아 비난을 사고 있다.

전남지역 한 학부모는 "병원에서 조그마한 수술이라도 잘못되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이 캠프는 월출산 등반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위험한 프로그램은 없다"며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진행에 잘 따라주고 안전사고에 더 주의해달라는 의미에서 서약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캠프 진행을 맡고 있는 국립나주병원 관계자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참가신청서에 관련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승진 대가 뇌물 수수

장성 모 농협장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용석)는 22일 승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성의 한 농협 조합장 김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해 온 김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승진 대가 명목으로 김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받아 쟁기 혐의다. 또 김씨는 또 다른 직원으로부터 같은 명복으로 현금 2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30만원을 받아 쟁기 혐의도 받고 있다.

농협 조합장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을 경우 공무원처럼 뇌물을 간주해 처벌된다. 김씨에게 뇌물을 준 직원들은 실제로는 승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



**조선대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 "2013 조선대학교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가 22일 오전 조선대 체육관에서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는 세계 11개국에서 140여명의 수련생·지도자가 오는 28일까지 조선대 태권도학과 학생들과 함께 수련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련기사 1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열자니 범죄·담배연기 門 닫자니 폭염·열대야

### 원룸 생활 여성·아파트 주민들 고통

남부지역을 태워버릴 듯한 폭염에 청문도 마음대로 열어놓지 못한다며 고통을 하소연하는가 하면, 무작정 열어놓을 수도 없다며 푸념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원룸에 사는 박모여(23)씨의 경우 땀이 줄줄 흘려내려도 청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한다. 문이 뚫려 쪽으로 나 있어 소음도 문제지만,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 좋지 않을 것 같다보니 습기로 인해 곰팡이 냄새가 방안에 가득한 경우가 많다. 환기 때문에 가끔 문을 열기도 하지만 끝내 문을 닫는다.

반면, 아파트 베란다 청문을 열어놓으면서는 불볕더위에 헌터를 막아내려고 청문을 열었지만 아랫집, 윗집에서 피우는 수도 없는 악취, 사생이 이렇게 보니 습기로 인해 곰팡이 냄새가 방안에 가득한 경우가 많다. 반면, 아파트 베란다 청문을 열어

놓으면 층간 흡연으로 이웃 간 다툼이 벌어진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 10층에 사는 정도여(여·34)씨는 날씨가 더워진 탓에 베란다 청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지만 아랫집, 윗집에서 피우는 수도 없는 악취, 사생이 이렇게 보니 습기로 인해 곰팡이 냄새가 방안에 가득한 경우가 많다. 반면, 아파트 베란다 청문을 열어

놓으면 주민들이 많아서 한 달 전체 민원의 20% 정도는 층간 흡연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일주일에 1~2번은 층간 흡연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파트의 경우 층간 소음 뿐 아니라 흡연이 이웃 간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경우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꽁꽁만 있다.

광산구 월곡동의 1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여름에는 청문을 열어두는 주민들이 많아서 한 달 전체 민원의 20% 정도는 층간 흡연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일주일에 1~2번은 층간 흡연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파트의 경우 층간 소음 뿐 아니라 흡연이 이웃 간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경우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폭염에 더위먹은 환자 속출

### '온열질환' 전남이 가장 취약

광주시 교육청은 1주일 이상 낮 최고기온은 33도를 웃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광산구 모 초등학교 A교장이 보직과 근무평점을 빌미로 교사들에게 200여 명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A교장을 직위해제했다. 조사 결과, A교장은 지난해 이 학

교 교사 2명으로부터 보직 임명과 근무평점을 잘 주겠다고 약속한 뒤 명절과 생일 등 특정한 날에 수십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방침이다. 이에 대해 A교장은 "억울하다.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대 캠퍼스에 능구렁이 소동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능구렁이 새끼로 추정되는 뱀이 출현해 학생들이 흔비백산.

○~22일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예술대 2호관 건물 뒷편 풀밭에 약 40cm 길이의 껌 절구무늬가 있는 뱀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소방서 관계자는 "학생들 신고를 받고 출동, 건물 밖 학단에서 새끼 능구렁이로 보이는 뱀 한마리를 포획해 해운대구에 있는 광주여자대학교에 향해 이송했습니다. /윤현석기자 chadol@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광정평기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b>[아파트]</b>					

2013년 경 5860	1	광주광역시 남구 주공아파트 702동 13층 1310호	아파트	101,000,000 101,000,000	
2013년 경 5983	1	광주광역시 동구 증진로 33번길 16, 101호	아파트	300,000,000 300,000,000	
2013년 경 6719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603-3 총 3층 3층 아파트	아파트	73,000,000 73,000,000	
2013년 경 7231	1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55, 205동 18층 10층 1017호	아파트	121,000,000 121,000,000	
2013년 경 7354	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05동 7층 702호	아파트	145,000,000 145,000,000	
2013년 경 7590	1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1동 모아아파트 104동 1층 107호	아파트	250,000,000 250,000,000	
<b>[대지 / 임야 / 전답]</b>					
2013년 경 2205	1	나주시 다도면 양정리 624 707㎡	답	10,605,000 10,60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3년 경 5235	1	나주시 봉황면 흥룡리 1163 1294㎡	답	15,528,000 15,52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3년 경 6986	1	당양군 봉산면 가곡리 산48 2571㎡ [현황: 일당]	임야	13,497,750 13,497,750	
2013년 경 7477	1	장성군 삼계면 삼계리 318 754㎡ [현황: 일당]	임야	2,161,438 2,161,438	농지취득자격증명
<b>[연립 주택 / 다세대 / 단지]</b>					
2013년 경 6214	1	장성군 황룡면 풍평리 125 1동 1층 107호	다세대	40,000,000 40,000,000	
<b>[단독주택, 다가구주택]</b>					
2012년 경 24413	1	국성구 경연 1동 609-4 631㎡ [현황: 일당]	단독주택	80,725,280 80,725,280	건물포함, 2013년 경 3888 [총괄]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광정평기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3년 경 1936	1	광주광역시 남			